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Women for the Effective Military Mission

-Establishing Women Military Chaplaincy)



이광순 목사

- 장신대 선교신학
- 영락교회 한경직 석좌교수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시급하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왜 신설되어야 할까?

사도 베드로의 기록을 깨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합동 세례를 주었던 목사는 대한민국의 군목이다. 대한민국 군목은 기독교 장교들과 함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

다. 대한민국 군목은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목 제도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 전쟁 중 한 병사가 군목제도를 요청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 지도자 한경직 목사의 적극적인 건의로 대통령과 정부 및 당국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군목 제도는 무보수 촉탁 군목, 민간 군목, 부분적인 군목 제도 실시, 전 군대의 군목 제도 확립과정을 거쳐서 신설, 발전되어 왔다.

최근 군부대 안에서의 다양한 종교 활동 가운데 천주교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한 명의 신부와 여러 명의 수녀들이 함께 군부대 안에서 공동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돌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병사들은 수녀들의 방문과 돌봄과 대화에 좋은 호응을 보여 주었다. 반대로 국방부에서 군 상담사를 선별하여 파송하였지만 그들은 별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군 상담사가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군 상담사로 여성 목회자를 세웠다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자 군목 제도 신설을 위한 알약과 같은 촉진제가 되었을 것이다. 요즈음 신병들은 신세대들이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외아들 또는 두 자녀 중의 하나이다. 신세대 군인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와 상담, 모성적 돌봄 또는 누나의 돌봄이 절실하다.

다른 한편 여자 군인과 여자 장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남자 군목들의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러기에 여자 군인과 장교는 여성 군종 목사의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평신도 동역자로서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병사는 어머니가 존재하고 어머니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이 모든 군인에게 여성 군종 목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만큼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 각국에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신설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sup>1)</sup>

이 논문에서는 여성 군종 목사 제도의 설립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지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여군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군선교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기관과 교회, 특히 여전도회 활동, 그리고 여성 민간 성직자들의 군선교 활동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여성 군종 목사들의 사역의 실례를 살펴보고 한국 여군종 목사 제도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 글에서 연구대상을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 장교’라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군종 목사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연구범위를 기독교 군종 장교인 군종 목사로 제한하기 때문이다.<sup>2)</sup>

지금까지 한국의 군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적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어 왔다. 군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천여 개가 넘는 교회당이 세워졌고 1년에 29만 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만들고 있다. 작금의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와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고자 비전2020 실천운동으로 구령의 열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2020은 매년 20만 명의 진중세례의 결실과 2020년까지 전 군인의 75% 이상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조직적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군인으로 신자가 된 청년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 교인이며 이들이 가정을 이룬 후에는 기독교 가정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미래가 전망되는 교회는 청년이 살아 숨쉬는 교회이므로 군에 입대한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군선교 사

1) 이광순, 한국기독교공보, [주간논단] ‘여군목제도’ 신설 시급하다, [2666호] 2008년 07월 19일 (토) 일자.

2)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24호, 시행 2007. 4. 9].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 3제 3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군종 분야 현역 장교 및 군종 사관 후보생의 선발·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종교) 군종 분야 현역 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대상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 2제 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역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건 사역이다.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교육, 복지, 장학, 홍보 등 다방면의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성 군종 목사 제도의 신설이 시급한 군 선교 과제임을 피력하고자 한다. 여자 군인과 여자 장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남자 군목들의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군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의 일차적 목적이기도 하지만 남자 병사들에게도 여군종 목사 제도의 당위성이 적용된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병사는 어머니의 돌봄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 어머니와 같은 섬세한 목회는 가족과 격리된 군 생활의 외로움과 내면의 갈등들을 해소시켜 군부대의 사고 감소, 사기 진작, 전투력 배양 등 병사들이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실현된다면 신세대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군선교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 1. 한국 여군의 역사와 현황

### 1) 한국 여군의 역사



한국 여군의 역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공군 창설의 산파인 ‘권기옥(權基玉)’으로 시작한다. 그녀는 여자항공교육대 창설 이전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여군 비행사이다. 권기옥은 송의여학교에 다니던 중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6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 이듬해 9월 상하이로 탈출해 항주에 있는 홍도여학교를 졸업하고,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1924년 초 원난육군항공학교(雲南陸軍航

空學校)에 입학하였다. 1925년 2월 28일 권기옥은 운남항공학교를 제1기생으로 졸업하여 중국에서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비행사가 되었다. 1931년 만주를 기습 점령한 일본이 1932년 상해전쟁을 일으키자, 권기옥은 비행기를 몰고 나가 일본군에게 기총사격을 한다. 이 상해전쟁에서 활약한 공로로 권기옥은 무공훈장을 받는다. 광복 후 1949년 귀국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된 권기옥은 ‘공군의 아주머니’로서 한국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sup>3)</sup>

초대 여군 병과장 김현숙(1915-1981)은 여군 탄생의 주역이다. 한국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초대 여군처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여군 창설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김현숙은 1949년 6월 30일 생긴 ‘여자배속장교’의 교육을 맡았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1950. 9. 1)되면서 여군의 역사가 본격화되었다. 신성모 국방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조국을 구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여자의용군을 모집했다. 제1기로 491명의 여성이 의용군 교육대를 수료하여 주로 육군본부와 첩보대 등에 배치돼 정보, 수집, 수색 및 행정 활동을 담당하였다.

3) 위키백과(인터넷백과사전), 평양 출신으로, 남편은 독립 운동가인 이상정이다. 11살 되던 해(1912년)에 은단공장에 취직하여 집안 살림을 돌던 권기옥은 이듬해 12살의 나이로 장대한 교회(章臺嶼教會: 1894년 설립)에서 운영하던 송현(崇賢)소학교에 입학하였다. 송현소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 계통 학교인 송의여학교 3학년에 편입한다. 권기옥은 반일 비밀 결사인 송죽회에 참가해 활동했다. 송의여학교 재학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3월 1일 경성부의 만세 시위와 동시에 평양에서 만세 시위를 일으키는 데 동참했다가 잠시 구금되었다.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1924년 초 원난육군항공학교(雲南陸軍航空學校)에 입학하였다. 권기옥이 중국의 비행학교에 입학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그녀가 가진 독립에 대한 염원과 주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술을 배우면 독립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기옥은 비행학교에 입학하려고 애썼으며, 임시정부로서는 비행기 확보와 아울러 비행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둘째로 일본의 비행학교와는 달리 매우 적은 학비 때문이었고, 마지막으로 유력 인사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25년 2월 28일 권기옥은 운남항공학교를 제1기생으로 졸업하여 여성으로서는 한국 최초의 비행사가 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권기옥>

1951년 육군본부에 여군 병과가 설치되었다. 1969년에는 특전사 여성 공수요원(9명)이 탄생하였다. 1971년 10월에는 여군 하사관 후보생 1기 50명이 임관했으며, 1973년 7월에는 초대 여군 중대장 권행옥 대위와 병사 17명을 모체로 하여, 본부사령실 예속으로 여군 중대가 창설되었다.

1990년부터 여군 병과를 남군과 동일한 제병과로 분류해 여군 장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육군 내에서 여군병과 배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 1990년 여군 병과가 폐지되고 보병·정훈·정보·경리 등 7개 병과로 전환되었다. 1993년 15명의 여성이 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보직을 맡았으며 임관한 보병장교를 전원 소대장에 배치하고, 이후 중대장과 연대장까지 역임하는 등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1997년부터 여성들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사관학교 문호 개방 이후 여성들의 군대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1997년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19명을 입교시킨 이후 1998년 육군사관학교와 1999년 해군사관학교가 차례로 개방하여 각각 25명, 21명의 여생도를 입학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대학 졸업자가 장교가 되는 과정인 사관 후보생과 부사관의 길도 열렸다. 여성 장교는 2001년 공사 49기 여군 장교 18명, 2002년 육사 58기 여군 장교 20명, 2003년 해사 57기 여군 장교 23명을 배출했다. 2002년 1월에는 양승숙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이 장군에 임명되어 첫 여군 장성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해 10월, 육군여군학교가 해체되고 육·해·공군 3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에서 양성통합교육이 이루어졌다.

2002년 11월에 국방부는 여군 발전단을 창설하고 단장에 민경자 대령을 임명하여 오늘까지 여군들을 격려하고 있다. 2003년부터 육군 부사관의 임무 전환을 통하여 여군들은 행정지원 위주의 임무에서 탈피하여, 야전부대 초급 지휘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07년에는 기혼 여성도 여군

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2007년 당시 여군은 보병 병과에 장교 165명(0.9%), 부사관 274명(1.3%)이었다.

## 2) 한국 여군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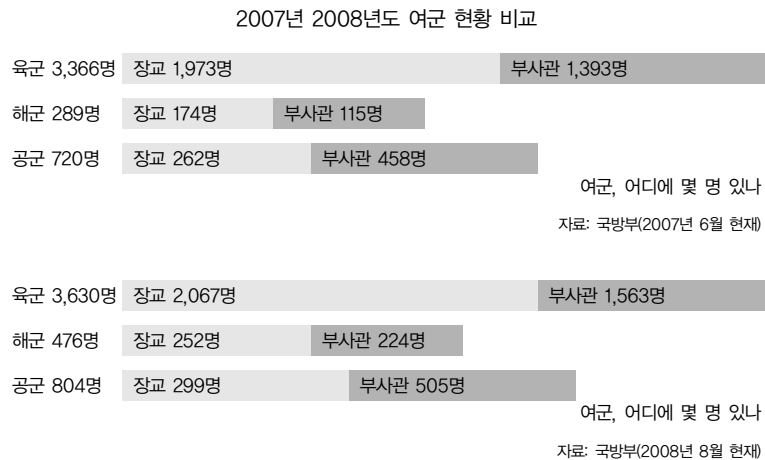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부터 육·해·공군은 저마다 여군 장교 후보생 모집을 확대하였고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 생도를 10% 이상씩 뽑았다. 그 결과 사관학교 수석 졸업을 여성 생도가 차지하는가 하면 전투기·함정과 같은 분야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은 여군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 속에 여군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전투함 승선 및 전투기 조종사 등 전투병과에도 여군이 활약하고 있다.

전체 군인의 0.6%에 불과한 수치이지만 여군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전망되는 군내 여군의 비중은 현재 수치로 나타난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군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군 모집 경쟁률이 이를 증명한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한 포털사이트 위민넷(<http://women.net>)에서 ‘여자, 군대 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젊은 여성 응답자 중 52.3%가 ‘새로운 커리어라고 여기고 도전해 보겠다’라고 응답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06년 여군사관 모집 경쟁률이 7.8 대 1에 이르렀고, 2007년 2월 여군 부사관 모집 경쟁률은 14대 1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도 지원자의 63%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대학원 졸업자도 3명이나 있었으며 전국 18개 전문대학 부사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2008년 8월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여성은 모두 4910명으로 장교가 2618명, 부사관이 2292명이다. 육군의 경우 장교가 2067명, 부사관 1563명이고, 해군은 장교가 252명, 부사관이 224명이다. 공군은 장교가 299명, 부사관이 505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군인 중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 이에 반해 미국 14.6%, 일본 4.6%, 중국 3.6%, 러시아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2020년까지 여군 간부 비율을 5.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장교 비율은 3.9%에서 7%로, 여성 부사관 비율은 2.1%에서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군 최고 계급은 준장으로 2년마다 간호사관학교장으로 보임하고 있다.<sup>4)</sup>

2007년과 2008년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의 세부적인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준장 1명, 대령 8명, 중령 60명, 소령 212명, 대위 1126명, 중·소위 1203명, 준위 8명, 원사 8명, 상사 96명, 중사 748명, 하사 1440명이다. 1948년 간호장교후보생제도가 도입되고 1950년 여자의 용군 교육대가 창설되면서 여성의 국방 참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배출

4) 국방일보 2008. 11. 14.

된 여성 장군은 4명이며 모두 간호병과 출신이다. 그러나 육군 보병을 비롯해 18개 병과, 해군 항해를 포함해 15개 병과, 해병대 보병 등 9개 병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군도 최일선 조종을 포함한 19개 병과에서 복무하며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성 특유의 개성과 능력,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활용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5)</sup>

### 3) 한국 여군들의 군복무 환경

#### (1) 군대 내의 불평 등 구조

여군의 계급구조는 대단히 기형적인 ‘압정형’ 구조로 나타난다. 여군의 경우에 영관급 장교는 소수이며 대위 이하 하급 장교들만 넘쳐난다. 2005년 현재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군 총 3,972명 중 영관급 장교는 119명, 대위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나머지 3,853명에 이른다. 영관급 장교가 고작 3%이다. 육군 장성급을 살펴보면 남군

이 300명에 이르지만 여군은 4명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군의 대다수가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응답자의 40%에 해당함). 자세한 성차별의 예로는 25.3%가 ‘보직 부여, 배치 및 직책 선택 시’라고 답하였고



5) 국방일보 2008. 11. 14.

‘훈련 시 열외’가 (13%), ‘병사들이 여군을 이성으로 인식’이 (13%), ‘지휘관의 여성차별 및 부하들의 여성상사 무시’가 (12.3%)이라고 하였다.<sup>6)</sup>

## (2) 군대 내의 불평 등 여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만 불평등하지 않은 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여군의 수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군들의 군복무 여건이라든지 여군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까지 군복무 여건은 남자 군인들의 신체적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야외에서 기동훈련을 할 때 여군들은 훈련생활에 매우 불편을 당할 수밖에 없다.<sup>7)</sup>

여군은 군복무의 대우와 진급에 차등이 있다. 첫째, 근무 평점이 높은 핵심 보직인 작전 참모와 지휘관급의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군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예컨대 진급을 위해서 중대장 경험이 필수이고, 지휘관을 거쳐야 하지만 여군에게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단급 전투 부대는 제외되고 기능 행정부대로만 배치되기 일쑤이다. 둘째, 여군은 대령 진급에서도 남군과 꼭 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원이 따로 배정, 제한되어 있다. 결국 영관급에 이르게 되면 여군은 이주 회귀해지게 된다. 이런 구조 안에서 많은 여군들은 형평성 있는 인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여군은 임용에서도 불평등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여군은 육군 규정에 의해 남군과 동일한 장기 복무를 선발원칙으로 적용받지만 실제로는 여군들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임관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ID), “여군이 경험하는 군내 제도적·심리적·규범적 남녀 평등수준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03. 2 - 2003. 12).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ID), ‘군대 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2004).

그러나 여군 부사관 모집 요강에는 ‘임관 후 연장 및 장기복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군들의 정규직 보장은 50%에만 해당된다는 설명이 없다. 김○○ 장교는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원한 사람이므로 누구나 장기복무를 원하게 마련인데, 여군의 경우 그 중 50%만 직업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sup>8)</sup>고 하였다.

여군은 제도적으로 보직이 제한되어 있다. 군 인사 방침 99-57호에 따르면 전투부대 및 직책, 수색 정찰, 특수작전 수행부대, 평시에 적과 교전 가능성 높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여군의 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군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인사관리 방침이라고 할 수 없다. 군 일각에서는 여군의 신체조건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공군이 실시한 한 조사는 이런 편견을 뒤집었다. 13명의 여성 전투 조종사를 대상으로 전술 임무 수행력과 체력 등을 1년간 측정한 결과 남성 전투 조종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군의 첨단화·정보화 분야에서 섬세함과 창의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직발령에 있어서 차별할 이유가 없다.

## 4) 해외 여군의 현황

세계 각국의 여군 창설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에 시작되어 20세기부터 거의 보편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여군의 창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19세기에, 미국은 1901년, 영국은 1922년, 서독·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 등은 1945년에 각각 여군이 창설되었다. 이탈리아는 2000년에 여성의 입대를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 군대 내 모든 분야에서

8) <http://www.army.mil.kr> 의 모집요강.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여군의 비율은 이스라엘이 30%, 미국 14.8%, 프랑스 13%, 러시아 10%, 영국 9%, 네덜란드 8.5%, 일본 4.2%, 중국 3.6%, 북한 3%, 스위스 0.4% 이다. 약 5.4%인 전체 독일군의 여군 비중은 위의 나라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sup>9)</sup> 수적으로 약 1만 200명에 달하는 여군의 대부분이 의료와 행정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투 병과 비중은 2% 정도이다. 그러나 독일은 앞으로 여군의 비율을 15%로 높인다는 내용이 담긴 군 남녀평등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진급이나 신규 직책을 임명할 때 여성 후보자가 상응한 자질과 업적이 있을 경우 우대하고 특임관 보직 임명 시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한편 육아와 가사 부담을 고려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10)</sup>

## 2. 여성의 군선교 활동

### 1) 여전도회의 군선교 사역

여전도회는 “모든 군인들은 바로 내 아들”이라는 모토로 군선교에 헌신해 오고 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여전도회의 군선교는 60여 년을 한결같이 헌신해 오고 있다. 1950년 4월 오대산에 있는 국군장병 위문을 필두로 오늘날까지 여전도회는 군선교사의 파송과 지원, 군목 활동비 지원, 세례식 주관, 군부대 교회 건축 지원, 군목 후보생 장학금 지원, 국군 병원 전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군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노회연합회별로 위문 방문, 선교비 지원, 간식 후원 등

9) 2004년 6월 30일 독일공영방송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보도.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독일 여군 대폭증원' Vol. 06(2004년 여름·가을호).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도 일일이 집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군선교에 임하고 있다. 여전도회는 전국연합회 차원으로 국내선교비 예산 중 70%를 군선교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전도회는 물질적 지원과 눈물의 기도로 후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해마다 6·25 금식기도회를 열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북한 구원운동 본부에서는 매년 5월 8일에 '0508기도회'에 참석하여 동포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영적인 후원자로서의 자리에서도 그 역할이 중대하다. 그 외 총회 군선교 후원회의 기도회를 주관하며 군목 및 군중사관후보생, 총회 군선교 관계자들과 함께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1962년에 최초의 군선교사 양효숙 전도사를 육군사관학교에 파송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군선교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여전도회는 육군 사관학교 육사교회, 청평병원 베데스다군인교회, 맹호부대 혜산진교회, 논산 연무대교회, 8사단 포병연대 소망교회에 군선교사 5명을 파송하고 이들의 사례비 일체를 담당할 뿐 아니라 육·해·공군 사관학교, 논산훈련소, 해군과 공군 교육사령부, 3사단 신병교육대, 해군 교육 훈련단, 입소대교회, 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306보충대 관문교회 등을 후원하며 그 외에도 군목활동비와 군의 행사비 및 간식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전도회의 군선교 활동 중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군부대 교회의 건축 지원 활동이다. 여전도회는 1991년 계룡교회를 건축할 때 1억 원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연무대 신병훈련소 입소대교회와 육군 부사관 학교 소망군인교회 건축을 지원하였으며 충성대교회 건축 지원을 위해 10억을 지원기로 결의하고 현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도회 군선교 사역 중 대규모 세례식을 빼놓을 수 없다. 매년 한 차례씩 2천~6천여 명의 병사에게 대규모 세례식을 거행한다. 각 노회연합회별로도 매년 자매결

연을 맺은 군부대를 방문해 세례식을 거행한다.

여전도회는 국군 장병들 위문에도 헌신하고 있다. 1977년부터 군선교 연합회가 전개하는 ‘나눔의 온차 돌리기 운동’을 후원하며 보은병 6백여 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추운 겨울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겨울철 군인들을 위한 ‘온차 돌리기 운동’은 32년째 행해지고 있다.

여전도회는 1972년부터 문서선교의 일환으로 기독교보를 군인들에게 보급하는 데 앞장섰으며 1966년부터는 국군병원 전도활동을, 1987년부터는 군종목사 수련회를 실시한다. 여전도회는 젊은 국군장병들의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전도회는 끝없는 기도로 후원하여, 국방의 의무를 치러야 하는 청년들이 자칫 술, 담배로 혹 훈련의 스트레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영적 방패막이가 되어 왔다. 젊은 장병들의 체험적인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한 대한의 아들들을 위한 여전도회 어머니들의 군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 2) 여성 민간 성직자의 군선교 사역

### (1) 민간 성직자의 정의 및 현황

‘민간 성직자’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군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종교의 민간인 성직자들 중에서 위촉받은 성직자이다. 민간 성직자는 전담지원 성직자와 수시지원 성직자로 구분된다. ‘전담지원 성직자’라 함은 해당부대의 종교업무를 전담하는 성직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해당 종교의 상급부대 군종참모(장교)의 동의로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 ‘주임교무’의 호칭으로 불린다. ‘수시지원 성직자’는 특정한 날에 군 종교업무를 지원하는 성직자를 말한다. 이들은 각 부대 군종참모(장교)의 추천을 받아 심사·선발된다.<sup>11)</sup>

기독교에서 ‘민간 성직자’는 일반적으로 ‘군선교 교역자’라고 호칭한다.<sup>12)</sup> 그 이유는 기독교 11개 교단이 소속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민간 성직자’를 ‘군선교 교역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산하에는 ‘한국군선교교육원’이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산하에 있는 모든 민간 성직자들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한국군선교교육원의 훈련을 받고 전 과목을 이수하고 통과한 수료자들이 민간 성직자로 파송 받는다. 한국군선교교육원의 훈련은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 군선교학·군종학·군상담학·군목회학 등 4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민간 성직자는 60세 미만으로 국방부 민간 성직자의 법령에 적합하며 군종목사파송교단 및 정통교단에 속하는 자로서 군선교에 관심 있는 자이면 누구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군선교 사명과 자질을 가진 민간 성직자들은 ‘신앙전력화’<sup>13)</sup>라는 구호아래 60만 국군장병들의 복음화 운동에 헌신한다.

1970년까지는 기독교의 독점적인 군선교 시대를 보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군종제도를 검토하면서 종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 외 타종교 즉 천주교와 불교, 후에는 원불교까지 군종 제도를 확대·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이 군종인력 정원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 군종 목사는 감소하게 되었다.<sup>14)</sup> 결국 기독교 군종 목사가 감소됨에 따라 점점 군종 목사가 배치되지 않는 부대가 늘어나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군 지원 군선교 교역자 사역이 활발해졌고 그

11) 국방부훈령 제 973호 (2008.10), ‘군 종교 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 관리 훈령’ 3-6 참조.

12)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로 부르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는 ‘군선교 교역자’라고 부르고, 본 교단(PCK) 총회 국내선교부의 군선교부에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호칭을 따라 동일한 ‘군선교 교역자’라고 부른다.

13) 환경직 목사가 ‘군복음화’를 위하여 ‘전군 신자화’운동을 전개하던 당시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문은식 군종감에게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내려 군종 활동을 장려했다.

14) 김영삼 전 대통령(장로는)은 기독교에 불이익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종교편향 주장이라는 비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종 목사를 감소시키고 군종 법사를 증원했다.



수도 점점 많아졌다. 따라서 여성 군선교 교역자들이 일반 목회에서 군선교 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군선교 교역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up>15)</sup>

육군 민간 성직자 현황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목 사	기 타	신 부	기 타	승 령	기 타
562	42	16	46	45	98
604(75%)		62(7%)		143(18%)	

출처: 2006년 육군본부 군종실 종합<sup>16)</sup>

위의 표를 보면 육군에서 파악된 민간 성직자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다. 주로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민간 사역자가 63%에 이른다. 민간 성직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민간 성직자의 연령대별, 성별 현황

구분	인원	전남	수시	불명	남	여
20대	7명	2명	·	5명	7명	·
30대	48명	22명	10명	16명	47명	·
40대	147명	72명	10명	42명	143명	4명
50대	207명	117명	36명	53명	192명	15명
60-64세	80명	54명	17명	9명	72명	8명
65-69세	55명	41명	9명	5명	48명	7명
70대	40명	28명	6명	6명	38명	2명
불명	98명	3명	23명	72명	97명	1명
합계	684명	341명	134명	209명	646명	38명

출처: 2006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종합<sup>17)</sup>

15) 현재 본 교단(PCK) 소속 군선교 교역자는 120여 명이 사역하고 있지만 2009년 말로 은퇴해야 할 교역자가 50% 정도이다. 군선교 교역자들은 이미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과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이지만 법령에 따라 은퇴 연령이 된 것이다. 은퇴할 교역자들을 대신하여 후임 교역자들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니 각 노회와 교회에서 군선교에 사명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인선과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성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군종 목사들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군종 목사들과 같은 연령대의 민간 성직자들은 202명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들은 20대-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 비해 민간 성직자는 80% 가까운 수가 50대와 그 이상인 것을 볼 때 좀 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민간 성직자의 자격요건에서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여성 민간 성직자의 수가 전체 민간 성직자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 군선교 교역자는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 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 사역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리는 것 또한 군선교가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sup>18)</sup>

## (2) 여성 민간 성직자의 활동과 역할의 실태

민간 성직자는 군종 목사보다 군인들에게 목회자로 다가가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군종 목사가 군인들에게 목회자로서보다는 계급이 높은 군 간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민간 성직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목회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상담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sup>19)</sup> 더욱이 여성 민간 성직자들은 여성 특유의 따스한 감성으로 군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여성 민간 성직자들의 목회활동에 대한 효율성

1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 수는 685명으로 군에서 파악한 수보다 많게 나타나는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자료가 아마도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17)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파악한 민간 성직자 수는 685명으로 군에서 파악한 수보다 많게 나타나는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자료가 아마도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18) 정수연 전도사(수도군단 총의교회 민간 성직자)는 여성 민간 성직자의 자격을 40세 이상 기혼자로 규정하기를 주장하였다. 남자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에서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 민간 성직자로 올 경우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킬 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군종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수연 전도사 인터뷰 중에서, 2009년 4월 23일.

19) 임지수(2005~2007년 동안 군 복무 당시 군종병사로 군선교에 힘썼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인터뷰에서, 2009년 4월 5일.

은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그 두 가지 사례이다.

첫째는 경기도 가평 해산진부대의 해산진교회를 섬기는 김현숙 목사(평북노회, 60세)의 경우이다. 김 목사는 군인들로 하여금 어머니와 같은 돌봄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장병들로부터 김 목사는 ‘엄마’로 통한다.<sup>20)</sup> 군 복무에 임하는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힘겹고 고된 훈련 일과 중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와 누나이다. 아무리 건강미 넘치고 늙름해 보이는 군인들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는 ‘어머니’라는 단어만으로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군인들은 여성 군선교 교역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어머니와 같은 돌봄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정수연 전도사이다. 정 전도사는 여성안수가 허락되지 않는 교단에 속한 전도사 신분으로 군선교에 헌신한 민간 성직자이다. 정 전도사는 수도교단에 속해 있는 충의교회를 20여 년 동안 섬기고 있는 사역자이다. 정 전도사는 처음에는 대령의 아내로, 즉 평신도로 여장교들과 젊은 간부들의 사모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차츰 군 교회를 더 전문적으로 섬기고자 신학공부를 하여 전도사가 되었다. 예배드리는 군사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 전도사는 친히 스스로 모든 군인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자처했고 군인들에게 집에서 ‘엄마’가 손수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손수 김밥을 싸서 전 군인들을 먹였다고 한다. 정 전도사가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손수 썬 김밥을 장병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

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 전도사는 군에 온 모든 장병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청년들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많은 경우가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 사회로부터 군입대를 선택한 청년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혈육이 아니면서도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새롭게 회복되어 신앙으로 인도되는 여러 차례의 경험을 민간 성직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sup>21)</sup> 정 전도사는 군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면서, 군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심신의 상태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 돌본 군인들의 어머니였음을 잘 보여 준다.

위의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김 목사와 정 전도사의 사역은 공통점도 있지만 특이한 점도 있다. 공통점은 어머니처럼 장병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전도하며 섬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정 전도사의 목회 영역에서 특이한 점은 여장교들, 군인 가족들, 젊은 군인 간부들의 아내들까지 목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장교들, 군인 가족들, 젊은 군인간부들의 아내들은 자칫 군종 목사의 목회적 돌봄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세밀히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군종 목사들의 목회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여성 민간 성직자들이 잘 해내고 있는 것이다.

### 3. 한국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의 당위성

여성의 지도력 변화, 지위와 역할의 전환에 따라 한국 여성의 사회참

20) 장병에게 내리사랑 전하는 ‘어머니’ 목사: 여성 민간 군목으로 군선교 앞장 서는 김현숙 목사, 〈한국기독교공보〉(2516호), 2005년 06월 23일.

21) 정수연 전도사 인터뷰, 2009년 4월 23일.

여가 세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도 한국 사회와 세계 여성 지도력의 방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있다.

## 1) 군내(軍內) 여성 리더십은 시대적 요청이다

여성 리더십은 국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의 내부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국방 환경은 상명하복만 강조하는 남성특유의 권위적·독단적 지도력에서 군의 선진화를 위한 새 시대 새 지도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군대의 리더십은 상벌 제도를 통해 부하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21세기형 리더십은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방대학교 김세영 박사에 의하면 여군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뛰어난 지혜와 지적 능력은 부하들의 감성 및 지적 능력을 자극해 리더십 발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sup>22)</sup>고 하였다.

군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남성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항상 여군의 체력적 열세를 말한다. 그러나 몸으로 전투하는 육탄전 시대는 지나갔다. 현대전은 첨단화된 정보전 시대이므로 유능한 고급 여성 인력을 국방 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 요소이다. 오늘날 고급 지휘관일수록 창의적이며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conceptual skill)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적 열세는 군 통솔력에 있어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최고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체력이나 육체적인 힘보다 인격적인 존경심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전에서는 체력의 중요성보다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인 지혜, 강인함, 지구력, 정신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여성의 모성보호 능력 같은 것들이다. 심리학에서 심리 실험상자 속에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어미 쥐들을 풀어놓으면 어미 쥐

22) 김세영, "여군 리더십," <국방여군>(2003, 3), 창간호, p. 18.

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전류를 뚫고 새끼들의 먹이를 희생적으로 찾아온다. 이처럼 여성의 모성보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러한 여성의 특성과 자질을 적극 개발할 때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sup>23)</sup>

## 2)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은 시급한 요청이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의 신설은 21세기 글로벌 여성시대의 리더십 전환과 더불어 긴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여군활용 및 확대 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국방개혁 2020을 세웠다. 이러한 국방부의 여성인력 활용과 확대 정책은 여성 군종목사 제도 설립에 부합한다. 군종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내 갈등 해소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센터 이종인 박사는 '장병 종교 활동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군종목사가 여성에게 개방되어야 한다"<sup>24)</sup>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성 군종목사 제도 설립은 시급하다.

여성 군종 목사제도 설립이 하루빨리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타종교의 여 군종 파송을 위한 계획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첫째, 천주교에서는 여성 사제제도가 없지만 수녀들의 활동이 일찍부

23) 김세영, "여군 리더십," *Ibid.*, p. 19.

24) 붓다뉴스, 2003-11-15, 문명이 기자.

25) 타종교의 여군종 장교 제도 설립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다. 지면상 각주를 통해 대략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불교계의 노력이 눈에 띈다. 군종 교구 출범1주년 특별 대담을 통해 강의 중에 법사는 군 발전을 위해 군은 비구니 군승(軍僧)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내 여성 군종 법사가 배출된다면 세계 여성사에서도 길이 남게 되고 그만큼 군에서도 비구니스님의 동참을 환영할 것(http://blog.daum.net/2946199/9770552)이라고 하였다. 초대 군종 교구장으로 임명된 일면 스님은 비구니 스님, 불교 전공 여성 법사 및 타 종단 중립학교 불교대학생 등에 군종 장교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http://blog.naver.com/panpany2/120016012601).

터 두드러졌다.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종교 중 천주교의 활동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명의 신부와 여러 명의 수녀들이 함께 군부대 안에서 사목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모성적인 방문과 돌봄과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sup>26)</sup>

둘째, 불교의 주류 종파인 조계종에서는 비구니 승을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하고 있다. 불교의 비구니 승 군종 파송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2년 당시 국방부 군종목사의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스님, 목사, 신부 및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서 제도상 성별의 차별은 없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송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본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비구니 스님 군승(軍僧) 참여’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비구니 스님 군승 파송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여군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추세이고 여군 장교가 전방 단위부대장으로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비구니 군승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sup>27)</sup> 그러나 불교계의 공식 입장은 여승의 군장교 진출을 적극 추천하지만 막상 여 군승 제도에 대해 여승들의 군복무에 대한 이질감이 있어서 내부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불교계가 합의해서 여 군승 제도를 신청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불교계의 신흥종교인 원불교는 현재 1백 40여 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에 정식으로 군종 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sup>28)</sup> 원불교는 여성 수도자들의 역할이 지대한 종교로 만약 국방부

26) 이광순, <한국기독교공보>(주간논단) ‘여군목제도’ 신설 시급하다 [2666호] 2008년 07월 19일 (토) 일자.

27) <불교신문>(2266호) 9월 30일, 허정철 기자.

28) 국방부훈령 제973호(2008. 10. 22) 참조.

에서 여성 군종 장교를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종교 중 가장 먼저 여성 군종 장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sup>29)</sup>

타종교에서 이토록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총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비해 기독교가 여 군종 목사 제도 신설에 대한 어떠한 건의도 없는 것은 안일한 태도이다. 여성 안수와 상관없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하여 11개 교단이 이미 준비된 인력으로라도 국방부가 법을 개정해주고 여성 군종 목사를 허락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하루 빨리 군선교를 위한 일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여성 군종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 3) 모델로서 미국 여성 군종 목사의 지위와 역할

미국의 경우 군종감은 소장이고 미국에는 1,200여 명의 군종 목사들이 있다. 미군의 육군 군종은 현재 130여 개의 교파와 종파에서 온 1,300여 명의 군종 장교가 있다. 소수 종교를 보면 이슬람 7명, 유대교 9명, 그리스 정교 11명 등이 있는데 비율로 보면 기독교 목사가 87%, 천주교와 기타 종교가 13%를 차지한다. 미군 군종의 인사 원칙은 모든 종교가 크건 작건 처음 배치는 대대급(400여 명) 규모에서 부임지를 배정받고, 군 생활을 오래하고 진급하게 되면 차차 상급부대로 가게 된다.

미국 여성 군종 목사에 대한 기록은 남북 전쟁(南北戰爭, American Civil War)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중 연대에 배속된 미망인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했던 제1위스콘신(Wisconsin) 중포대(Heavy Artillery)의 엘라 호바트 부인(Ms. Ella Hobart)이 연합군의 군목으로 선출되어 12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

29) <http://wgunjong.or.kr> “원불교가 군종 분야 병적면임대성 종교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경향신문>(2006. 04. 21)

1973년 이후로 임명된 첫 번째 여성 군종 목사는 미해군 중위 다이아나 폴만(Dianna Pohlman)이었다. 육군으로는 1974년 앨리스 헨더슨(Alice Henderson)이었다. 당시 미 국회가 양성평등권 법안 개정에 대한 논쟁의 반응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군 진출이 많이 늘어났다. 군에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 군종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연히 군내 여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여군뿐 아니라 군내 군종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기에 여 군종 목사의 군 진출은 큰 도움이 되었다. 1993년까지 30명의 여 군종 목사들이 육·해·공군에서 군 목회를 활동적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군선교를 돕는 민간 성직자의 6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미국에서 처음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생긴 것은 언급한 대로 국회에서 ‘군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토론이 불거지면서 그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1970년대 초반의 적성 검사에서 여성들이 군복무에 더 적합하다고 나왔다.<sup>31)</sup> 이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하여 오늘까지 미군의 여성 군종 목사의 역사는 40~50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여 군종 목사의 최고직에는 두 명의 대령이 있다. 여 군종 목사는 진급이나 보직이나 훈련에 있어서 남자와 똑같이 참여한다. 미국도 처음에는 여성 군종 목사의 활동 영역이 교관(instructors)이나 군병원의 원목이었다. 1990년 직전에 처음 여성 군종 목사가 전투지역으로 파병된 기록이 나타나고 차츰 여 군종 목사의 영역이 넓어졌다.

현재 이라크와 파키스탄에 여군, 여군 간부, 여군종 목사가 모두 파병되어 최전선에서 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 종교 지도자에

대해 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며 환영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여성 군종 목사 제도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이는 새로 신설해야 하는 한국의 여성 군종 장교 제도 설립에 좋은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적극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한국 여성 군종 목사와 군종 목사의 필요성

한국에도 여성 군종 목사 또는 군종 목사 제도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1) 여성 군종 목사는 군내의 효과적인 목회를 지향할 수 있다

군종 목사의 5대 기능은 종교의식 집전, 교육업무, 선도업무, 대민업무, 전시업무 기능이다. 이 모든 역할 가운데 장병들의 사고 예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선도업무이다. 선도업무는 각양 다양한 요인에 의한 사고유발 가능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장병들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이다.

연간 많은 수의 장병들이 심리적 불안과 내면적 갈등 등을 해소하지 못하여 자살 또는 사건, 사고와 연루되어 병력이 손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여성 군종 목사의 역할은 지대하게 요청된다. 이 역할은 오직 군종 목사로서 성직자 고유의 영역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2006년도 육군 군종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장병들은 어떤 간부나 타병과보다 군종 목사와 상담하기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30) John Brinsfield, *Encouraging Faith, Supporting Soldiers: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Chaplain Corps, 1975-1995*, Part One, 40: "Religious in the Military" in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Military History*, ed. 1999, 602.

31) John Brinsfield가 Sam Moffett과 주고 받은 여성 군종 목사에 관한 이메일 내용 중.

(2)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남성 군종장교를 목회자보다는 군 간부로 여긴다

이로 인해 바른 목회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계급 구조 의식은 군선교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군종 목사는 국가의 공인된 장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군종 목사는 성직자인 동시에 참모장교로서 두 영역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의 기능보다는 후자의 기능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sup>32)</sup> 실제로 5년간 군종 목사로서 사역하였던 권OO 목사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이중적 신분(목사/장교)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자신을 한번도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와 다른 군인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정체성이 목사이기보다는 장교로 여겨지며, 보이고 있다고 느꼈다. 또한 자신의 목회 영역조차 차츰 군 간부로서의 입장에 머물게 되는 것을 느꼈고, 일반 병사에게까지 자신이 손을 내밀어 돌아보는 섬세함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장기복무 신청을 하지 않고 제대를 하였다고 한다.<sup>33)</sup>

한편 여성에게는 모성적 본성이 있다. 이 모성적 본성은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을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돌보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계속 늘어나는 여군들도 섬세한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여성 군종 목사와 군종 목사는 남성 군종 목사 목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군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32) 육군본부, 《군종업무(아전교범 15-1)》(대전: 육군 인쇄창, 2006), pp. 6-13.

33) 권OO 목사 인터뷰에서, 2009년 4월 23일.

(3)여성의 섬세함과 상담자로서의 리더십은 남성 군종 목사보다 뛰어날 수 있다

국군 장병들의 심적 상황들을 세밀히 읽고 어루만지는 것은 여성이 더 큰 몫을 할 수 있다. 군종 목사의 리더십을 간략히 말한다면, 영적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여성으로서 섬세함의 역량이 한껏 발휘되는 것은 상담자로서 리더십의 위치이다. 여성 군종 목사와 군종 목사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상담을 통하여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소유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 군종 목사와 군종 목사는 상담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병사들이 찾아와 편안하게 친밀감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4)여성 군종 목사 제도의 당위성은 여군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남성 군종 목사가 여군에게 목회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여군을 위한 부대시설이나 군 제도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복무에 임하는 여군의 고충은 일반 남자 군인이 갖는 것보다 몇 배 심할 것이다. 일반 훈련의 고된 업무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겪는 여성은 심리적으로 요동이 심한 때이므로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 4. 한국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실천 방안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군 장교로 임관할 수 없는 3대 사각지대가 있다. 학생중앙군사학교(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와 제3사관

학교의 군종 목사이다. 이 글에서는 3대 사각지대에서 여성 군종 목사 제도만을 연구한 것이다.

## 1) 여성은 남성보다 원칙 준수에 강하다

군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을 수호하며, 전쟁과 전투를 위한 특수 임무수행 기관이다. 즉 강한 군대, 강한 전사육성'이라는 전투력 증강을 최대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은 군대의 남성적 강함과 군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군기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또한 군대의 지휘관의 주요 임무는 군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 지휘관들은 여성 군종 목사가 자대의 군기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해한다. 그러나 실상 여성들의 특성상, 남성보다는 훨씬 더 원칙과 법을 준수하며,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 왜냐하면 남성들보다는 기득권층에서 소외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애착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법과 기준 그리고 원칙대로 군기를 바르게 확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 2) 여성은 남자와 같이 국가에 봉사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여성 군종 목사가 된다는 의미는 여자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만약 여자가기 때문에 군종 목사가 될 수 없다면, 여자에게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는 행정 규칙을 현실적인 기준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대상 행정규칙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 ② 과도한 준수 부담을 강요하거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사항, ③ 모호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는 사항, ④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sup>34)</sup> 등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의 '2008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는 여성의 군종 목사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2008년 4월 17일자 공고에 따르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sup>35)</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제118조의 3 및 제119조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제118조의 3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그 밖에 군종 분야 현역 장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정비(위원회자료의 부패방지 추진 개요), <http://www.acrc.go.kr/acrc/index.do>

35) 2008년도 4월 17일 국방부 장관령 공고,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1. 응시 자격 및 선발 인원.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편입 <개정 1999.3.3, 2006. 9. 22>)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잘못된 공고는 시정하여 재공고되어야 하며,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에 따라서 여성은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군종 목사 제도 설립에 대하여 기독교 교회헌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헌법<sup>36)</sup>에 따르면,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에 문제가 없다.

#### 제25조 목사의 자격

2. 30세 이상 된 자. 단, 군목과 선교 목사는 차한에 부재한다.

#### 제27조 목사의 칭호

4. 전도 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 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법과 교회법은 여성의 군종 목사 제도 설립에 대한 반대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3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1998),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pp. 190-191.

### 3) 여성은 군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이 있다

한국 교회의 11개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적용할 수 있는 여성 군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여성 군종 목사, 민간 성직자, 부사관, 군 상담사로 나눌 수 있다.

#### (1) 여성은 군종 목사로서 봉사할 수 있다

군종 목사는 먼저 대학 재학 시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 목사후보생으로 졸업하기까지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관하기 전에 반드시 안수를 받고 군종 목사로 임관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교단에서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관을 받지 못하므로, 목사 안수는 필수적이다. 현재 각 신학대학교에는 입학생의 30%가 여자학생들인 학교도 있다. 여자 신학생은 당당하게 남자와 경쟁하여 입학하기 때문에 여자 군종 목사 역시 남자들과의 정당한 경쟁에 의하여 선발·교육·훈련·임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성우대 또는 할당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여성으로 인한 하향성 평준화 또는 질적 저하 현상이 초래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군종 목사의 질적 향상을 유지하고, 21세기형 대한민국 국군의 시대적 전망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여성은 민간 성직자로 봉사할 수 있다

민간 성직자는 민간 여자 목사와 전도사로서 군대에서 군종 교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여자 목사보다는 민간 여자 전도사가 더 헌신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말에는 민간 성직자 중 기독교 군선교 교역자의 50% 정도가 은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선교 헌신자들을 군대로 파송해야 하는 현실적 실정은 시급하게 민간 성직자를



요청하고 있다.

여성 민간 성직자는 군종 목사의 제도적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 군종 목사는 2년마다 임지를 전역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장기적으로 목회적 계획과 활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 군선교 교역자는 한 교회에서 장기적으로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하여 목회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돌봄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여성은 부사관으로 봉사할 수 있다

부사관의 필요성은 다음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군부대 내의 교회들은 크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그룹의 교인은 부사관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교회의 교인으로서 평신도와 제직, 또는 사역자로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이다. 둘째 그룹의 교인은 현역 장교들과 병사들이다. 이런 두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군인 교회의 문제는 군종 목사가 장기적인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와 목회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종 목사가 2년마다 이동해야 하는 제도에 따라 한 교회에서 2년 이상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부사관과 그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키고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또한 부사관과 그 가족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직이 되어서, 상담과 전도와 기독교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 기독교 여성들과 여교역자들의 부사관학교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 (4) 여성은 상담사로서 봉사할 수 있다

전문상담사는 장병들의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게 하여 부대의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평불만을 해소하여

부대 전력과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5. 한국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신설을 위한 전망

### 1) “여군종 제도 신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군선교를 위하여 전문적인 여성 군종 목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양성 군종 목사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성 위주의 신학교육을 양성 공동교육과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군목 후보생은 남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남녀 학생이 함께 군목 후보생이 되고 교육과 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자 군목 후보생들은 돌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도와 양육, 만남과 상담, 기독교교육, 성경공부와 소그룹 지도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수련 받아야 할 것이다.

#### (2) 교회와 총회는 여성 군종 목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신설에 대하여 교회와 총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국방부 및 정부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합법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총회가 국방부와 협력할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면 교회와 여전도회는 여성 인력 수급절차에 따라 여성 군종 목사의 위치와 역할, 활동 영역 개발, 생활비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전도회는 이미 군선

교비를 책정하고 전국의 회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군종 제도가 한시적으로 축탁제가 되든지 민간 목사의 파송이든지 그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sup>37)</sup>

## 2) “여군종 제도를 신설하면 신세대 군선교가 효과적으로 극대화 될까?”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이며 동시에 국민의 군대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가의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군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와 처음부터 가장 우호적이며 미군과 연합해서 합동작전을 지속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받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 미국의 여성 군종 목사 제도는 오랜 역사 가운데 여성 군종 목사들의 역할이 군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에 좋은 역할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시대와 글로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뿐 아니라 군 자체에서도 종교 지도자와 군종 목사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은 21세기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열정이 응집된 결과가 될 것이다. 20세기의 기독교 독점시대에는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여 왔다. 더욱이 종단 간 경쟁시대가 돌입된 21세기는 하드웨어를 뛰어넘은 소프트웨어

37) 이광순, <한국기독교공보>(주간논단), ‘여군목제도’ 신설 시급하다, [2666호] 2008년 07월 19일(토) 일자.

시대이므로 여성 군종목사 제도를 통하여 군선교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대의 선진화 없이는 국가적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요원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은 군대 선진화의 촉진제가 된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가 실현된다면 신세대 군선교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병사들에게 이 제도는 가족과 격리되어 있는 군생활의 외로움과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상담을 통해 군부대 사고 감소, 사기진작, 전투력 배양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여성 군종 목사 제도 설립을 통해 군선교 현장은 황금어장 안의 가두리장과 같아서 민족복음화의 직행 통로가 될 것이다.<sup>38)</sup>

38) Ibid.